

# ‘전국 제1의 화훼도시’ 강진서 펼쳐지는 여름꽃 향연

###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수국길 축제’ 개최 보은산 V랜드 일원...체험·물놀이·웨딩 촬영 등

‘전국 제1의 화훼도시’ 강진에서 대규모 수국 축제가 열린다.

강진군은 15일 “2023 강진 수국길 축제”가 ‘물, 숲 강진의 여름속으로’를 슬로건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 간 보은산 V랜드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국길 축제에서는 ‘전국 제1의 화훼도시 강진’의 명성에 걸맞은 다양한 색상의 수국을 만나볼 수 있다.

수국을 활용한 전시, 체험 행사부터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물놀이까지 다채로운 콘텐츠가 준비됐으며

마트폰 활용 사진대회부터 숲속 음악회, 버스킹, 다양한 색감의 수국들로 구성된 감성 포토존까지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됐다.

또 축제장에서는 ‘리마인드 웨딩’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미리 구비된 신랑·신부 드레스와 수국 부케를 활용해 보은산에 빼곡히 들어선 나무들과 햇살 아래 밝게 빛나는 수국을 배경으로 특별한 웨딩 촬영이 가능하며 역자는 시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압화 부채부터 수국 리스(화판), 압

화 그림통, 수국 화분까지 다양한 수국 관련 굿즈도 만들 수 있으며 축제장 내 저수지에는 짜릿한 여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20여대 가량의 수상 자전거를 비치하고 여름 대표 수생식물 연꽃단지도 선보인다.

군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해 V랜드 물놀이장을 축제 기간에 맞춰 한시 개장할 방침으로 시원한 물놀이의 바다분수와 함께 신나는 물총 싸움을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강한 햇살에 대비해 50m 길이의 일명 ‘오로라 타프’도 갖춰지며 일반적인 그늘막 대신 빛과 바람에 따라 오로라나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형태를 띄기 때문에 이색 포토존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현재 농가 20개소가 5만8천51㎡



강진 수국길 축제가 오는 30일부터 7월2일까지 보은산 V랜드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강진 수국을 배경으로 한 리마인드 웨딩 촬영 장면. (강진군 제공)

규모로 수국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생산 면적의 32%, 전남도 내에서도 전체 생산량의 91%에 달하는 등 압

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 조경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수국의 상당수가 강진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진산 절화용 수국도 품질이 우수해 2011년부터 일본에 수출, 2017년부터는 일본 전체 수출량의 100%를 담당하고 있다.

강진산 수국은 양액 재배 등 우수한 기술력과 온난한 기후,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꽃색이 선명하고 화려하다. 모닝스타, 화이트아리, 핑크아리과 같은 국산 품종의 수국도 육성하고 있으며 화훼 시장 선점을 이어가기 위해 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재배 기술을 키워가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존재 자체가 킬러 콘텐츠인 강진 수국을 활용해 다른 곳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다양하게 마련했다”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고장’ 강진에 와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암군은 16-18일 F1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2023 영암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사진은 두카티를 탄 레이싱 선수가 바이크 점검을 받고 있다. (한국이륜차안전보급협회 제공)

## ‘영암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 오늘 개막

### F1국제자동차경주장서...바이크 300여대·선수 1천여명 각축전

“2023 영암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이 16-18일 3일 간 F1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개최된다.

15일 영암군에 따르면 한국이륜차안전보급협회 주관, 영암군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바이크 300여대, 1천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각축전을 벌일 예정이다.

페스티벌은 16-17일 연습 경기인 ‘트랙 데이’, 18일 본경기인 ‘코리아 트로페오 레이스’, 일본출신 프로레이서 유타오카야 선수 라이딩 교육, 사진 출사

등 4개의 이벤트로 구성된다. 3개의 클래스로 나뉜 본경기는 ▲600cc 이상 두카티 ▲600cc 이상 피렐리 ▲400cc 이상 KTM 대회다. 두카티는 두카티사의 바이크로, 피렐리는 피렐리사의 타이어를 장착한 바이크로 벌이는 레이싱이다.

경기방식은 국제규칙인 ‘8시간 내구 레이스’다. 아시아 각 단체에 소속된 선수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최대 4인-1팀’을 이뤄 1인 당 30분 이상 주행해야 한다.

대회 관람은 무료고,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있다. 가상현실로 바이크 타기를 체험하는 ‘레이싱 시뮬레이터’, 푸짐한 경품이 준비된 추첨 등이 대표적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 외에도 6월과 10월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영암 튜닝카 레이싱 대회’도 예정돼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국제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레이싱과 모터카 경기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와 튜닝산업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 기자

## 영광군 ‘농촌협약 사업’ 선정...433억 확보

### 농림부 주관...지자체 필요사업 패키지 지원

영광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433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림부와 지자체가 협업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 정책수립 방향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군은 “음식·관광·에너지로 열여가는 스마트 영광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영광 생활권 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유류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농촌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영광=김동규기자

앞으로 군은 농식품부와 ‘농촌 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승인 절차를 거쳐 총 사업비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 농촌협약 계획에 담긴 정책 과제 이행과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강종만 군수는 “농촌협약 선정은 군이 거둔 농촌 개발분야 역대 최대 성과로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라며 “그간 농촌협약 공모를 철저히 준비한 만큼 사업이 순조롭게 이행해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어디서나 살고 싶은 영광군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진도군, 구강 이동진료차량 ‘호우’ 의료 취약지역 주민 대상 주 2회

진도군이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강 이동진료차량을 운행, 호우를 얻고 있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구강 이동진료차량 운행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인 우리마을 전담주치의제의 일환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운영한다.

치과 진료장비를 갖춘 차량이 마을을 방문, 정기적인 치료 검진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치과 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 구강 이동진료차량은 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방문해 ▲스케일링 ▲불소도포 ▲틀니 살균 세척 ▲구강 보건교육 등 구강관리 서비스를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특히 구강 이동진료차량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진도=백세권기자

## 나주시 ‘대중교통 보조금·노선 개편’ 시민설명회 개최

### 26일 시민회관...내달 읍·면·동 순회 설명회도 예정

나주시가 대시민 설명회를 통해 대중교통 노선 개편과 그간 논란이 됐던 운수회사 보조금 과다 지원 등에 대한 의문점을 푼다.

나주시는 15일 “오는 28일 오후 4시 나주시민회관에서 대중교통(나주교통) 보조금 관련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는 나주교통 보조금 전반에 대해, 2부에서는 민선 8기 대중교통 노선 개편 관련 사항을 다룬다.

대중교통 보조금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보조금 지원방식, 종류, 표준운송원가 개념, 원가 산정·정산 절차 등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예정이다.

또 주민감사청구, 시민사회 고소·고발 및 회계 검증 용역 결과에 따른 운수회사 처분 내용과 결과, 개선사항 등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보조금 관련 각종 논란,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 방식의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대중교통 노선 개편 추진 방향·추진 상황,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

답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대중교통 실수요자인 지역별, 각계각층 시민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7월 중 개최할 방침이다.

윤병태 시장은 “대중교통 보조금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을 사실에 기반해 진술하게 설명하기 위해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며 “보조금은 줄이고 이용은 편리한 혁신적인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준환 기자

## 전남 서부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정례회의

### 활동 공유·향후 계획 논의...어린이 안전문화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전남 서부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15일 “전남 호탤현대비아라한에서 전남 서부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2023년 2분기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목포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전남도청, 노사단체, 공공기관, 언론사 등 20개 기관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례 회의서는 기관별 연속성 있는 활동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상반기 활동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으며 전남 서부지역 사고발생 동향, 문제점·대책 등 기관별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활동 내용은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민·관 합동 캠페인 ▲전광판·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 ▲릴레이 기고 ▲실무자 간담회의 ▲찾아가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 등이다.

또 추진단에서 개최한 어린이 안전 문화 실천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도 병행해 공모전에 입상한

목포·영암지역 초등학생들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한인권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산업 현장에 안전 문화가 정착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정착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추진단의 역할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발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추진단 내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전남 서부지역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완도군 ‘작은 섬, 큰 기쁨’ 사업 추진

### 20인 이하 거주 섬 대상 주택 개보수·마을 환경 정비

완도군은 20인 이하 주민이 거주하는 섬의 생활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2023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은 정책에서 소외된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섬별로 1천만원의 지원, 주택 개보수(도배·장판 등)와 가전제품 수리, 마을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금일 다량도와 노화장사도 등 4개 섬이며, 지난 9일 금일 다량도에서 첫 번째 사업을 마쳤다. 금일 다량도는 금일읍에서 개인 선박을 통해 30분을 이동해야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16호, 2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섬이다.

관심을 갖고 개선해 줘 고맙다”고 전했다.

앞으로 군은 노화 장사도 등 3개 섬 주민들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기석 지역개발과장은 “규모 있는 섬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소외됐던 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뜻 깊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 기자

